

01 한국건축의 현재성

The Currentness of Korean Architecture

글. 임형남 | Lim, Hyeung-nam | 본지 편집위원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한국 건축의 현재성이란 고상한 담론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시점의 치열한 상황이며, 어찌 보면 우리가 자초한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정확하고 단호하게 환부를 치료해야 한다. 또한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지식체계로서의 담론이라는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건축인가, 전문가로서의 권위인가, 아니면 단순히 생계의 도구일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라도 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내지 못했을까?

현대건축이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건축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왜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내지 못했을까.

한때 한국의 설계사무소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설계를 하고 대형 개발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설계수준이 중국에 한참 앞선다고 생각했으며, 자심감도 꽤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이미 프리츠커 상 수상자가 나왔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중국의 건축 수준은 엄청나다. 중국뿐이 아니다. 어느새 베트남 등 동남아의 건축도 우리보다 훨씬 참신하고 실험적이며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방심하는 사이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 전 현대중공업에서 강릉에 짓고자하는 대형 호텔 설계를 리차드 마이어라는 미국인에게 맡긴 적이 있다.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 현대중공업은 사업의 홍보차 리차드 마이어 초청 특강을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었다.

모처럼 듣게 되는 건축 거장의 강연이기도 했고 주최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터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날 나도 그 곳에 갔었다. 도착해보니 행사장 초입부터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모여 있었다. 다양한 건축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강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들어가는 입

구에서부터 주최 측이 출입을 엄격하게 체크하며 입장객을 대하는 태도가 딱딱하고 불친절해서, 남의 잔치에 찾아온 불청객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건축특강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래도 책으로만 봤던 사람을 직접 보고 그의 작업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로 불편함을 꺾고 참으며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이윽고 강연이 시작되었다. 하얀색을 주조로 한 깔끔하고 세련된 설계로 유명한 백발의 노장 리처드 마이어가 단상에 올랐다. 그러나 강연 내용은 우리도 잡지에서 많이 봤던 자신의 작품을 슬라이드로 나열하고 개요를 죽 읽어 나가는 정도였다. 그만의 건축의 철학이나 독특한 관점 등 기대했던 알맹이가 없었다.

대신 강연이 끝나고 주최 측 정몽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 행사에 대한 공치사를 시작했다. 그는 리처드 마이어를 굳이 소개하며(그보다 앞서있는 청중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한국 건축설계의 수준이 낮아서 자신이 외국의 유명한 건축사를 비싼 돈 들여 초빙하여 설계를 맡겼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 대다수를 이루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많은 종사자들을 앞에 두고, 한국 건축을 노골적으로 낮잡아 이야기하는 어이없는 무례를 들으며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넓디넓은 강당에 앉은 채로, 아무런 준비도 반발할 틈도 없이 모욕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호텔은 잘 지어졌고 지금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호텔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짓밟힌 자존심이 떠오르고, 그때의 상처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아물지 않고 육신거린다.

이들테면 건설업 한 구석의 좁디좁은 분야로 보는 것이다

한국 건축의 현재를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인식이 대충 그 정도이다. 이들테면 건설업 한 구석의 좁디좁은 분야로 보는 것이다.

또 한 번은 경기도 화성 봉담이라는 곳에 누군가 집을 설계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다. 먼 길을 찾아가서 의뢰한 사람을 만나고 땅을 봤다. 큰 저수지를 앞에 둔 제법 괜찮은 땅이었다. 나를 부른 사람은 집도 제법 크게 지을 것이며, 어떤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는 등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죽 나열했다. 그리고 말미에 이것은 현상설계이므로 자신에게 설계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 이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있게 지금 두 군데에서 설계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가 세 번째 방문한 회사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런 현상설계가 어디 있느냐?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신의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그 선배는 “예전에 파주에 어떤 마을을 조성하며 건축설계회사 여럿

이 모여 집을 지었는데 돈은 많이 들고 하자가 너무 많았다며, 건축설계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경합을 붙여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나는 미리 의사를 묻지도 않은 현상설계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처음에 만난 설계사무소와 착실히 진행해보라는 조언을 하고 막히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

무척 입맛이 썼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건축계를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식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런 상황이 모두 무지한 대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30년 전, 내가 설계사무소에 갓 입사했을 때만해도 비록 신입사원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대우를 받았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다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줬고 공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태도가 달라져있다. 설계에 대해 지적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맘대로 설계를 고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접을 받아야한다는 말이 아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협의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설계자는 공사를 잘 모르고 이상하고 낭만적인 소리만 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0년대에 들어서며 민간발주의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건설시장의 물량이 턴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으로 소화되는 공공발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고층 주상복합과 뉴타운 개발 등이 줄을 이었고 공기업의 지방이전, 공공청사의 신축 등 대단히 큰 물량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분명 건축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건축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대형 건설사와 대형 설계사무소가 사이 좋게 나누어 가져가며 소진되었다. 거창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다음 사람 먹지 못할 정도로 뒤섞어버리듯 이수라장을 만든 것이다.

들러리만 선 턴키 비즈니스...과연 건축발전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의문

대형사무소는 몸집을 계속 불리고 매출액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사업은 건설사가 주관사가 되고 설계사는 그 아래로 들어가서 설계비를 건설사에게 받는 형태였다. 물론 건설사가 주관사가 되어서 안 될 것은 전혀 없다. 다만 건설사는 설계에 대하여 디자인이나 건축의 독창성보다는 공사의 용이성과 이윤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우수한 설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

건설사의 눈치를 보는 설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그렇게 십 년이 흘렀으며 그 사이 한국 건축계는 이상한 컴퓨터 그래픽과, 기능에도 어울리지 않고 쓰기도 불편하며 에너지 낭비가 심하며 지나

치게 번쩍거리는 공공건축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의 진정성보다는 건축에 대한 지독한 냉소만 남아있다. 물론 건축이 진정성과 열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부심과 열정이 필요한 직업이다.

꼬여버린 건축교육 개혁

기형적인 설계시장 만큼이나 우리의 건축 교육도 아주 이상하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어느 시점에, 우리 건축교육의 내실화와 국제 설계 기준, 건축설계의 해외진출 운운하며 힘들여 5년제로 학제를 개편했다. 그에 따라 인증위원회도 만들고, 각 학교는 그 기준에 맞추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매달렸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좋은 학생이 건축설계를 기피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선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진입을 막는 좁은 문을 만들어 버린 일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입시생들의 건축과 지원이 줄어든 것 말고도, 그렇게 힘주어 연설하고 수선을 떨어 5년제 건축대학이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오히려 건축 설계를 하려는 졸업생의 수는 많이 줄었다. 학생들은 졸업하는 해에 일찌감치 취업시험을 보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결국 건축과는 공부만 길게 하고 별로 장래성이 없는 과가 되어버렸다.

이건 또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그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다 생긴 것들이다.

건축이란 오래 걸리는 일이며 그만큼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며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지켜나가야 한다. 많은 건축사들이 묵묵히 그런 과정을 거치며 현실과 부딪히며 어렵게 건축을 한다.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그 과정에서 겪는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 또한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나는 6공화국 때부터 건축인허가를 경험했다. 그 사이 많은 경험을 했다. 아주 관료적이며 지나친 억압이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다. 허가를 한 번 내기 위해서는 산더미처럼 접어서 철한 청사진을 쌓아서 들고 가서, 건축사협회에서 도장을 찍고 검토투를 받고 구청에 들고 가서 관련부서에 하나씩 배부하고, 조금이라도 수정이 생기면 청사진을 갈아 끼우는 등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주 고압적이라 감히 말대꾸할 수도 없었다. 그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이상하게 고정된 관료들의 못된 관행이었는데, 물론 그 사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이 그 전처럼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시절은 많이 지났다.

권위에 의한 규제보다 제도에 의한 규제가 기이하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한 심의 제도와 특별검사원 제도 등을 통한 간접 갑질이 아주 극심하다. 법에도 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를 거치는 동안 설계안은 많은 변화를 겪는다. 뚜렷이 공공에 피해가 간다거나 현저하게 법률적 위해요소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닐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하는가.

필요 이상으로 다수의 생각이 반영되다 보면 두루뭉술한 설계안이 나오고, 밋밋하고 특징이 없는 건축 환경이 되기 쉽다. 제대로 된 건축 설계는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런 심의란 결국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억압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구조의 시스템이고, 사용자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는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들은 행정기관이다.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공공기관이, 설계자를 견제해야하고 감시해야하는 예비 범법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도처에 ‘열린사회의 적들’이 포진하고 있다.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듯 건물을 한 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헤쳐야한다. 가끔 우리끼리 “이건 뭐 독립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저런 고충을 이야기하곤 한다.

한국 건설 시장의 규모가 160조 가량 된다는데 설계 시장의 규모는 5조 정도 된다. 건설규모에 비해 설계 시장의 규모가 분명히 작은 편이다. 정상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만 해도 우리의 시장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왜곡된 건축설계시장 정상화 되어야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시장의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주 이상한 일이다. 이것 역시 우리가 스스로 가격을 낮추며, 영역을 좁히며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설계사무소는 대략 9천여 곳 정도 된다. 그중 75% 정도가 종사자가 5인 미만의 작은 사무실이다. 그리고 매출액이 1~3억 미만의 사무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중 4%에 불과한 대형 사무실이 설계매출 총합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무척 기형적인 구조다. 그리고 여러 곳에 진입장벽이 설치되어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신한 건축사가 발굴될 수 없는 구조이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와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 건축계의 작은 사무실들이 많이 사라졌다. 사람은 동맥과 정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핏줄들이 건강해야 살아간다.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소는 우리 건축계의 실핏줄 같은 존재이다.

그런 실패자들이 다시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에 지친 사람들이 다시 설계사무소를 찾기 시작한 십여 년 전부터이다. 그 무렵부터 십 년 정도 빙하기를 거친 건축계에 약한 햇빛이 들기 시작했다. 폐허에서 작은 꽃들이나 싱싱한 들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어 올리듯, 많은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설계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조율하였고 사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어찌 보면 진정한 건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건축계에서 힘을 모아 응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일이었다.

황폐화된 시장에서 희망이 보이는 작은 건축사사무소들...

소형 사무실들이 활기가 생기자, 대형사무실에서 나온 인력들이나 대학 졸업하고 몇 년의 실무를 거쳐 바로 독립한 사무실들이 비운 다음에 죽순이 일어나듯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적은 공사비로 집을 짓기 위해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치고 건축주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대화를 이루는 등 그동안 없어졌던 건축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어렵게 찾아온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건축에 대한 애정을 되살리고 초심을 되찾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